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연합찬양대가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합창'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충현선교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음악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1

일 오후 7시 30분 이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음악회'를 은혜롭게 개최했다. 올해로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은 충현선교교회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며, 단순히 교회 음악회가 아닌 커

뮤니티 차원의 문화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악회는 충현 난타팀의 난타 공연, 크리스토퍼 불 박사(UCLA 교수)의 오르간 솔로, 충현 EM찬양대 카리스 콰이어의 연주, 소프라노 황혜

경의 솔로,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졌다. 특히 연합찬양대의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합창은 대곡인 만큼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담임 민중기 목사는 "30주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으로의 30년도 충현선교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고 말하며 지난 30년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2015 샌퍼난도밸리 성탄 연합 찬양제 및 1만 5천불 장학금 수여



샌퍼난도밸리한인교역자협의회가 성탄절을 맞이해 15명의 학생들에게 총 1만 5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샌퍼난도밸리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곽덕근 목사) 주최 2015년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3일(주일) 오후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1부 성탄 연합예배, 2부 성탄 축하 찬양제와 3부 장학금 수여식이

로 열린 이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김영일 목사(벨리드림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에 방수민 목사(베다니한인교회 담임), 성경봉독에 서오석 목사(나성

평화교회 담임), 찬양, 설교에 곽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 담임), 헌금기도에 하모세 목사(고백하는교회 담임), 벨리 지역 목회자 부부의 헌금 특송, 축도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순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벤츄라 지역 한인교회 연합 성탄 감사 찬양예배

벤츄라카운티 지역을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13일(주일) 오후 5시 카마리온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영 목사)에서 열린 연합 성탄 감사 찬양예배는 사회에 이상영 목사, 기도 에 이정구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설교 에 김민영

목사(벤츄라감리교회 담임), 봉헌 기도 에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 담임), 축도 에 남재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순으로 드러졌다. 예배 순서마다 은혜의 찬양, 기쁨의 찬양, 능력의 찬양, 드림의 찬양, 영광의 찬양, 축복의 찬양이란 주제로 찬양이 울려졌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믿음과 온유와 겸손으로” 글로벌선교교회 임직예배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가 지난 13일(주일) 오후 임직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길 일군을 임명했다. 황종민 씨가 장로 에 임직하고 고용원 씨 외 6명이 안수집사에 임직, 공용배 씨 외 7

명이 안수집사에 취임했다. 고주희 씨 외 9명이 권사에 임직, 공정희 씨 외 2명이 권사에 취임했다. 이날 임직예배에서는 고건주 목사(PCA 한인서남노회장)가 설교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나라오토먼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토론토,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교육부 오전 11:30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 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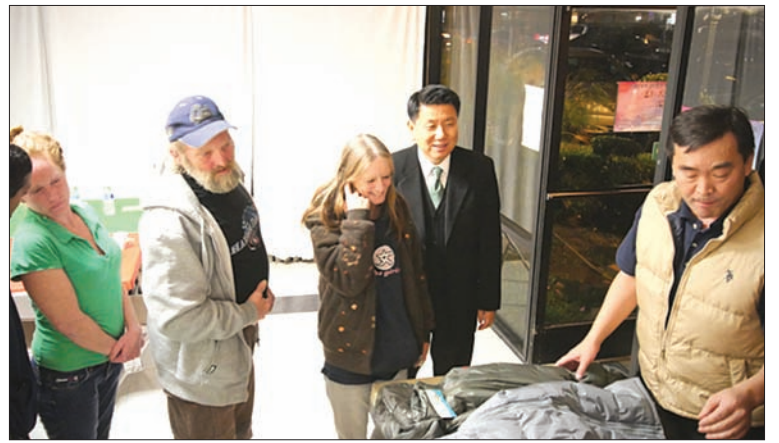
choong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인랜드 지역 교회 연합찬양제에 참석한 각 교회 찬양대들이 성탄 축하 찬양을 합창하고 있다.



남가주헬로쉽교회가 올해도 홈리스들에게 향한 자켓을 전달했다.

인랜드 지역 한인교회 연합 성탄 감사 찬양예배

인랜드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성탄을 맞이해 지난 13일 남가주 헬로쉽교회에서 연합찬양제를 열었다.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와 갯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 에텐

선교회(담임 윤석길 목사), 언약교회(담임 오경환 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담임 박혜성 목사)의 성가대가 참여해 찬양했다.

찬양에 앞서 드린 연합예배에서 기도는 오경환 목사, 성경봉독은 이희철 목사, 설교는 손상현 목사(두

란노교회 담임)가 '순종'이란 제목으로, 봉헌기도는 윤석길 목사, 광고는 박신철 목사, 축도는 박충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 담임)가 했다. 이날 행사의 헌금은 홈리스들에게 향한 자켓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김준형 기자

“홈리스에게 사랑의 방한 자켓 선물”

남가주헬로쉽교회 인랜드교협과 함께 홈리스 섬겨

남가주헬로쉽교회(담임 박혜성 목사)가 금년에도 변함없이 포모나 지역의 홈리스들에게 사랑의 방한 자켓을 선물했다.

매년 연말이 돌아 올 때면 홈리스들을 교회로 초청해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식사를 대접해 온 이 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2일 이

행사를 열고 100여 명의 홈리스들을 섬겼다.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가 이 행사에 뜻을 함께 하며 13일 열린 연합찬양제 헌금을 미리 교회 측에 전달해 방한 자켓을 구매했고 제반 행사 비용은 남가주헬로쉽교회가 부담했다.



벤츄라 지역 교회 연합찬양제에 참석한 각 교회 찬양대들이 성탄 축하 찬양을 합창하고 있다.



48대 회장 백지영 목사가 49대 신임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목사회 기를 이양하고 있다.

벤츄라 지역 한인교회 연합 성탄 감사 찬양예배

[1면으로부터 계속] 특별한 순서도 이어졌다. 벤츄라 지역 목회자 부부의 특별찬양과 유스그룹에서 '주님과 같이'를 찬양하며 워십댄스로 함께했다. 특히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는 이 교회 담임인 조인 목사가 작사 작곡한 '아기 예수께'를 불

러 감동을 더했다. 이날 성탄예배는 헌금은 여성 쉐더 라잇하우스(Light House) 후원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이 행사를 주최한 벤츄라카운티교회협의회에는 벤츄라감리교회, 벤츄라열린문장로교회, 벤츄라

카운티장로교회, 새생명교회, 시미밸리한인교회, 옥스나드한인교회,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주님의교회,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등이 속해 있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49대 임원 이취임예배”

회장 엄규서 목사·이사장 알렉스 양 선교사·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9대 회장단 이취임예배가 지난 13일(주일) 아가페선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종용 목사(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제1부 예배에서는 설교, 축사, 격려사, 목사회기 이양식, 이취임사, 오바마 대통령 표창장 및 메달 전달, 공로패 전달, 임명패 전달 등의 식순이 진행됐다. 2부는 만찬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설교는 '세상의 기쁨'(눅2:8-14) 주제로 크리스천 처치 제자교회의 돈 듀웨이 목사가 했다.

축사는 제임스 안(LA한인회장), 김현명 LA총영사, 데이빗 류의원(대독) 등이 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와 이강평 목사(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는 동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격려사는 류당열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단 회장)가 했다.

지난 한 해동안 남가주한인목사회

를 무리없이 이끌어온 48대 회장 백지영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첫 여성 회장으로 선임되어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며 “새로 취임하는 엄규서 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들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엄규서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한결같이 기도해온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약 8천 여명에 이르는 남가주 지역 현역 목회자들이 함께 하는 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군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지난 2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이사장 김재권 장로가 이임한 자리는 알렉스 양 선교사(크리스천헤럴드 회장)가 새로 임명됐다.

이영인 기자

샌퍼난도밸리 성탄 연합 찬양제 및 장학금 수여식

[1면으로부터 계속]누가복음 1장 26-31절을 본문으로 '성탄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곽 목사는 “세상에선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려고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진 찬양제에서는 벨리 지역 교회들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벨리연합감리교회, 웨

스트힐장로교회, 은혜와평강교회 등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벨리 지역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를 합창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총 15명의 학생들에게 1만 5천불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위원장인 김인식 목사는 “벨리 지역 교회들의 차세대 양성 협력에 감사한다”면서 “계속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장학기금은 고백하는교

회, 벨리연합감리교회, 베다니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온누리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은혜와평강교회, 벨리매거진, 벨리코리안뉴스, 서흥서치과가 협찬해서 조성됐다.

한편, 이 협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 김일영 목사(벨리드림교회 담임), 부회장 문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 담임) 등을 선출했다. 이인규 기자

사랑의 담요 나누기 10불 모금 운동

연말연시가 되면 거리의 홈리스들과 교도소 수감자들은 상대적 외로움과 추위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 이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미주총회에서 '사랑의 담요 나누기 10불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 모금 목표액 : 5만불
- 모금기간 : 12월 31일까지
- 모금 운동에 금일봉으로 참여하신 분(무순)
 - 서영석 장로(라크라스센터시), 최학선 치과의사, 한기형 목사, 류당열 목사
 - 세종문고, Heart 싸인, 박효우 목사, 김창현 목사, 박병구 목사
 - 이동명 목사, 실로암교회(담임 최경섭 목사), 주요셉 집사, 서요한 목사 등
- 후원문의 : 전화 (213)505-1947(류당열 목사)
- Pay To The Order Of : KCCUSA(한기총미주총회)
- 보내실곳: PO Box 191365 LA, CA 90019
-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미주총회
- 총재 : 이영훈 목사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임직원들과 한마음 되어 아름다운 동행

“저 혼자 힘으로 목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김 수석부회장(나눔과섬김의교회)을 비롯, 16명의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분과위원장 등 유능하신 임직원들과 한마음 되어 모든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총회에서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9대 회장에 당선돼 지난 13일 취임한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교회)는 함께 가는 길의 소중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일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2007년 김재연 전 회장 시절부터 이 단체에서 연합사역의 꿈을 펼쳐온 엄 회장은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목사회는 본질적으로 회원인 목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친선 도모를 돕기 존재하는 단체”라며 “주님을 위해 이민목회 현장에서 기꺼이 고생을 감내하는 그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49대 남가주한목사회장에 취임한 엄규서 목사는 “훌륭한 임직원들과 하나 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인터뷰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 엄 규 서 목사

이를 위해 16명의 부회장을 영입했다. 모두가 소정의 발전기금을 내고 자원해서 동참한 이들로, 엄 회장에 따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회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섬김이들이다. 혼자 일하는 탁월한 리더보다 함께 일하는 좀 모자라는 리더가 낫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목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힘쓰는다면 협력자들은 반드시 나온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임직원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모든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에 따르면 부회장들은 행정, 재정, 구제, 선교 등으로 명확하게 업무를 분담해 소속된 50명에 가까운 분과위원장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분과위원장들도 열악한 목사회 재정에 십시일반 정성을 보냈다.

그는 “과도한 부담(현행 발전기금 회장 5,000달러, 수석부회장 3,000달러) 때문에 좋은 분들이 봉사하지 못하게 되는 현 제도를 극복할 방안이 앞으로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목사회는 회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사랑의 피로 묵이도록 볼링대회, 탁구대회, 족구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잇따라 준비할 계획이다.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들을 섬기는 위로행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3.1절 기념예배 및 음악회 등 성공적인 행사는 그대로 계승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피종진 목사를 감사로 2월28일(주일)에 열린다. 여름에는 6.25 기념 추모예배를 갖는다.

이같이 사회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전임 회장들의 좋은 사업 계승하면서 무료 결혼식 등 새로운 행사도 추진 한인축제 참여 통해서 장학기금 모금 “어려운 회원 찾아가는 단체 만들 것”

는 자각과 한인 이민사회가 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태동됐고 지금도 한인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일일식당을 통해 벌였던 장학사업은 ‘한국의 날 축제’에서 부스를 임대해 음식을 팔고 거머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커뮤니티의 잔치에 동참해 함께 즐기

면서 봉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는 판단에서다.

목사들만을 위한 목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기에, 커뮤니티를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사실은 관계지만 웨딩마치를 울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무료 결혼식 개최가 그것이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부부의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커플의 합동결혼식이 아닌 개인 결혼식으로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마련하면 한 번의 준비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엄 회장은 기대한다.

이 행사는 목사회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한인회 등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웨딩관련 업체들의 후원을 요청할 생각이다.

내년 4월13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들의 유권자등록 및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 일을 담당할 ‘제20대 총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참여위원회’의 공

동위원장을 맡은 엄 회장은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 교회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목사회는 단체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첫 임직원 회의에서 새로운 내규를 통과시켰다. 엄 회장의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유효한 이 내규는 회의 중 월가를 부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할 경우 무조건 정회하고 당사자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이 골자. 삼진 아웃제 조항이 포함돼 동일인이 같은 잘못을 3회 반복할 경우에는 직책에 관계없이 사임시킨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차례 목회자 세미나도 마련한다. 성경이나 신학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회자가 잘 몰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회의 진행법이나 목회자 윤리 등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인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월례회 때마다 정확한 재정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역에 어려움을 겪거나 병약한 목사님들이 적지 않다. 많은 분들이 힐링이 필요하다. 그분들을 찾아가는 목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는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기독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 언론들도 잘못하는 일부보다는 잘하는 다수에 대해 많이 보도해 달라. 한인 대형교회들이 목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엄 회장은 서울기독대학교와 SFTS를 거쳐 어바인 인터내셔널대학교 대학원(원 호프 인터내셔널대학교 대학원)에서 M.Div.를, 페이스신학대학원에서 PhD를 각각 받았으며, 한국에서 20년 목회하고 1998년 도미한 이래 줄곧 LA 한인타운에서 출석교인 100명 규모 월서크리스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한편 개교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가운데 연합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제자회)에 속해 있다.

김장섭 전문위원



49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 예배를 마친 신규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지난 13일 남침례회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성오 목사)가 송년예배를 드렸다.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송년감사예배 드려”

남가주 지역 남침례회(SBC) 소속 한인교회들이 송년의 밤을 가졌다. 남침례회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성오 목사)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약 100여 회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송년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에서는 박경호 목사(얼바인 침례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익현 목사가 기도하고 김영하 목사

(살롬선교침례교회 담임)가 ‘성령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남용순 목사가 축도했다. 2부에서는 반재근 목사(시미벨리안 침례교회 담임)의 사회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들은 특히 2015년 동안 묵화하며 겪은 어려움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가주와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2016년을 이끌게 될 신임회장은 설교나 교회 행정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월례회와 소그룹 모임을 열어 회원 묵화자들의 묵화 사역을 돕기로 했다. 2016년 협의회를 이끌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성오 목사, 부회장 정영민 목사, 총무 민승배 목사, 서기 정충재 목사, 회계 박경호 목사. [자료제공:SBC 최명균 목사]



김지성 담임목사가 임직자들로부터 임직자 헌신 선서를 받고 있다.

글로벌선교교회, 임직예배 드려

[1면으로부터 계속] 고건주 목사(PCA 한인서남노회장은) “명령 받은 것을 다한 후에”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상선 목사(PCA 한인서남노회 서기)가 축사를 전했다. 임직자들에게 대한 안수와 취임 식수를 마친 후에 김대평 목사(바위선교회

담임)가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 담임)가 교우들에게 권면을 했다. 이 교회 담임 김지성 목사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셨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직임을 위임하셨다”

서 “오늘 우리 교회의 청지기로서 세워지는 임직자 모두가 바른 사람들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황종민 장로는 “절대 순종, 절대 긍정의 믿음과 운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LA동부교협 신임회장 송재호 목사 선출

A동부교역자협의회가 지난 14일 브레아의 한 음식점에서 신임회장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송 신임회장은 “힘들고 외로운 사명의 길을 걷는 목회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회는 다르지만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지상명령의 사명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2016년의 사업 중 2세대들과 목회자 자녀 모임을 활성화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동부지역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도와 부회장으로는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 총무로는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담임)가 선임됐다.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③

《예루살렘 편》

평화의 도시(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술탄이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온산 지구(중)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 유대인에게는 정신적 고향이자 종교의 중심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의 현장일 뿐 아니라 AD 48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도회의 장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적 중심지이다.

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양의 우물’ 인접한 곳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

5. 베데스다 연못

스테판 문(일명 사자문)에서 가깝다. 기원전 2세기 시몬이 대제사장으로서 있던 때 성전에 물을 공급하고 의학적 치료를 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연못물이 치유력이 있다고 전해져 환자들이 늘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요 5:2-9)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다.

7. 예수님 무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후 묻힌 곳(Golgotha)에 세운 교회. 이 교회는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장소다. 콘스탄틴 황제는 AD 336년경 이 자리에 큰 교회를 건립했다. 이 교회는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화재로 파괴되고 그 후 모데스토스에 의해 재건되었다. 현존하는 교회는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것이다. <계속>

6. 성 안나 교회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를 기념해 세운 교회.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AD170~180년경에 쓰여진 ‘야고보 원복음서’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와 그녀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야고보의 원복음서를 비롯한 몇몇 외경과 전승을 바탕으로 5세기 말부터 안나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벳자타 연못가를 거룩한 곳으로 여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메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메니저 김상준.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영적통일의 가정천국을

마태복음 10:34-42절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한 가족에 다섯 식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길을 가고 맙니다.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사주를 받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구원 얻은 가족 중, 몇 명을 아주 원수 대하듯 합니다. '교회는 왜 가느냐, 헌금은 왜 하느냐?'고 여러 가지로 시비하고 대적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핍박도 참아라

34-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족 중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하는 확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 분이 비록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영적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분은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은 뻔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과 회개도 없이, 성령과도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분은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을 모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2.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것은 헬라어 '뒤나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도 다이너마이트로 터드리면 다 깨지고 박살나서 가루가 됩니다. 여기서 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셔야 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고침 받아 자연인으로 바로 썼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하러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라 하셨습니다. 고쳐주라는 것은 네 의술이나 네 방법으로 고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대상자가 병든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심각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침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의 기쁨이 됩니다. 집회마치고 떠날 때에 병을 고침 받은 성도가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며 감사 목사인 나에게 만 불의 선교비를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양합

니다. 제가 그 분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고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니 제가 돈을 받아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것을 종자돈으로 선교를 시작하라고 하며 다시 돌려줍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하셨습니다. 복음이 빛을 잃고, 성령의 능하신 역사가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은 돈을 거두어 챙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섬겨라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풍자적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만큼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아주 세밀하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당신에게 누가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조금도 값어치가 없다. 한 줌 흙에 불과하다. 나를 죽이겠다는 죽이다. 당신이 나를 죽인 후에도 당신이 회개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올 수 있길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아무개는 진짜 구원 얻은 성도라고 보증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그 분이 나를 구원 얻게 하려고 죄인들에게 뺨도 맞고, 침 뱀음을 당하시며, 십자가 형틀에 속절없이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남편, 아빠,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신자 남편이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그런 섬김의 덕을 끝까지 세우게 될 때 완악한 남편도 언젠가는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527-0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명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mfo@aeg.edu info@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인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사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고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 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크리스마스 3R



이석철 목사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다. 유난히 어려웠던 경제 상황과 IS 테러와 총기 사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뜻깊은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요즘의 크리스마스는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면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새기고 제대로 이 날을 기려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영어의 R자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떠올리게 됐다.

첫째는 'Rejoice' 즉, 크리스마스의 참 기쁨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분명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다. 종교의 유무나 종파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 그 이유는 선물이나 파티,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치장된 환경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선물이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하면 대다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물일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선물은 크리스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의미이다. 그것은 실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는 실로 "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근본 이유여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Christmas)의 주인공은 그리스도(Christ)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과연 나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이 그리스도 때문인지.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파티 없이도 기쁘게 이 날을 지낼 수 있는지를.

두 번째 키워드는 'Receive' 즉,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아 누리라는 것이다. 선물이 배달됐는데 수취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받아 놓고 뜯어보

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선물은 받아서 누리야 한다. 그것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배달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그 선물을 '수취'하느냐, 그리고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 불행하게도 유대 땅, 하나님이 선택하여 찾아오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절했다. 그와 똑같은 불행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의 선물과 파티 때문에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많지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있을까?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있을 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볼 일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Remember'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크리스마스에는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주는 사람은 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다. '값없다'(free)는 것은 '값어치 없다'(worthless)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는다는 뜻이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크나 큰 슬픔의 날이고 나쁜 소식이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분은 오로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Christ) 마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운명 지워진 '크로스'(Cross) 마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에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달리셨던 그 "나무"를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는 별을 붙인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장식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인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말이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의 빛진 자로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 그 빛을 갚는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기리는 방법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먼저 우리가 받아 누리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탄절을 맞아 서로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고 파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선물이 있음을 생각하며 크리스마스를 지내야겠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2015년 한 해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내년에도 우리 앞의 삶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자.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심령의 가난과 애통의 복



이용종 목사
예수사랑교회

전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 애통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함을 전제한다. 사도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존재로 바뀌지 않고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탄식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그것은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은 거룩함을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또 누구에게 오시나? 바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시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오신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바로 이 애통과 관련이 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의 존재가 곧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없음을 탄식했다. 사도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자신 안에 죄라는 실존을 느끼고 죄에 대한 탄식으로 비참해한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이라며 탄식한다.

죄의 강력함은 내가 죄를 거절할 때면 잠시 멈추지만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면 한 걸음씩 다가와서 사로잡는다. 그리고 목이 딱 잡히면 죄를 짓게 된다. 죄는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를 이기기에는 너무도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인식을 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즈니스 \$3645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길 순례체험 ★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아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격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 와 전문 인솔자 동행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도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도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NEW | 미서부일주

한층더 여유로운 요세미티 국립공원 전일 관광
남만의 샌프란 시스코 금문공원, 소살리토, 트윈피크 관광
1. 하나투어만이 최신형 리무진 버스! 2. 최선을 다하는 고객감동 서비스
3. 최고의 호텔로 내집처럼 편안한 숙박! 4. 베테랑 가이드와 최고의 식사!



새로운 감동의 시작!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나투어 New 미서부 관광



- 2박 3일 - 그랜드캐년 2박 3일 \$299 출발: 화
- 3박 4일 - **New** 요세미티/샌프란 3박 4일 \$399 출발: 목, 금, 토
- 미서부 3대 캐년 3박 4일 \$389 출발: 월, 화
- 5박 6일 - **New** 미서부 5박 6일 \$599 출발: 화, 토
- 6박 7일 - **New** 미서부 6박 7일 \$689 출발: 월, 화
- 그랜드 캐년 8대 캐년 6박 7일 \$799 출발: 12/17
- 스카이워크 2박 3일 \$349 출발: 월
- 기차여행 1박 2일 \$229 출발: 월, 수, 토
- 멕시코 1박 2일 \$179 출발: 월, 수, 토

HNT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 212.706.9177
- 라스베이거스 사무소 :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하실때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선물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나즈 모바일
선물권!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0이상 Pre Pay 가능)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교회 및 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중학교 / 토요일-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자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장태원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4시 엘리야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주동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나니기도방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주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정오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신현호 담임목사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학교: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주동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지난 13일 '사랑의 담요 나누기 10불 모금운동' 전개 설명회가 열렸다. 모금액은 홈리스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중앙) 류당열 목사

“사랑의 담요 나누기 10불 모금운동 전개”

연말을 맞아 거리의 홈리스와 교도소 수감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담요 나누기 10불 모금운동' 전개 설명회가 지난 11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운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총재 이영훈 목사) 미주총회(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주최로 전개된다. 모금 기간은 올해 말인 이달 31일까지 계속 된다.

조성된 모금액은 전액 담요 구입에 사용되며 다운타운 홈리스 거리에서 직접 배부하거나 노숙자 사역 단체 및 교도소 사역 단체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 모금 운동을 이끌고 있는 류 목사는 이 담요 나누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해마다 홈리스들과 교도소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추운 겨울철을 맞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됐다”고 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모금 운동의 목표액은 5만불이다.

류당열 목사는 이 모금 운동이 한 달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진행되지만 관심어린 손길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목표금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류당열 목사(213-505-1947) 이영인 기자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는 '송년감사 및 성탄축하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네 번째) 회장 이기미 한의사.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송년감사 및 성탄축하 예배”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회장 이기미)가 지난 13일(주일) 송년감사 및 성탄축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1부 예배에서는 이 협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율렌리 선교사가 설교했다. 이어 오덕상 이사의 선교보고와 이기미 회장의 감사간증 및 기도인도, 아리조나 VBS 선교사역팀에 합류한 의료사역 동영상 감상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회원간 교제와 사회원 소개가 있었고, 3부는 조형식 부회장과 사문총무의 진행으로 감사선물 증정 등의 시간을 즐기며 크리스천의 영성이 바탕이 된 웃음과 화평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손에 손잡고 '사랑의 종소리'를 합창한 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울려드리며 모든 예배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자료제공: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미주복음방송(사장 임덕순 장로) 직원들이 그동안 후원자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신실한 후원자들을 위해 은혜로운 화음으로 화답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후원자 감사의 밤”

연말을 맞아 그동안 미주복음방송을 후원해 준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전하는 '2015미주복음방송 후원자 감사의 밤'이 지난 14일 오후 6시 미주복음방송 도서실에서 열렸다.

2부는 정성껏 마련된 식사를 즐기며 임직원 및 참여 후원자들의 소개가 있었다.

3부는 지난 9일 '2015연말 불우 이웃돕기 특별방송'을 통해 모금된 현금을 지역 비영리단체에게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남가주밀알선교단, 살롬장애이성교회, 비전사각장애인센터 등 총 8개 단체에 전달됐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지난 2011년 2월 후원 현금으로 구입한 자체 AM1190 스테이션을 통해 20KW의 출력으로 남가주 전체의 한인 청취자들을 위해 일년 365일 24시간 순수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미주지역 대표 한인 복음방송이다.

* 후원문의: 213-381-1190 이영인 기자



사랑나눔선교회가 올해도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사랑의 점퍼를 나눈다. 사진은 과거 점퍼 나눔 행사 모습.

“샌버나디노에 점퍼로 사랑 나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 대표적인 나눔 사역 단체인 사랑나눔선교회가 지역 이웃에게 올해도 사랑의 점퍼를 나눈다. 지난 17여 년간 샌버나디노 지역에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음식과 옷을 나누는 사랑나눔선교회의 대표 이춘준 목사는 “별써 추위전 날씨가 노숙자들이 걱정된다. 작은 정성과 기도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남가주 지역 교회와 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창대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대교회 주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92408 •문의: 951-966-9191

이인규 기자



CTS America와 UGN복음방송이 지난 14일 복음선교 사역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CTS America·UGN복음방송 사역 협약식”

CTS America(대표 김종철, 이하 CTS)와 UGN복음방송(대표 여운영 목사)은 지난 14일 오전 LA한인타운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앱 클라우드 플랫폼 복음선교 사역 협력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신현철 목사(OC교협 부회장) 기도, 김미경 사모 찬양, 양사 대표 인사말,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설교, 협약식, 앱 클라우드 플랫폼 설명회 및 시연, 질의응답, 류종길 총장(미성대학교)과 김재울 목사(남가주교협 수석 부회장) 축사, 이숙현 회장(가든스위트호텔 대표) 인사말, 여병연 목사(어린이전도협회 LA지부 대표) 폐회 기도, 광고 및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용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행 1: 8,

롬12: 1-3) 주제의 말씀 선포에서 CTS TV와 UGN복음방송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어 아름답게 동역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PC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교회나 비즈니스 등의 사용자들이 제작 및 저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동영상, 오디오, 사진 등)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다. 저장된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를 이용해도 쉽게 공유,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다. *문의: CTS(562-565-2234), UGN복음방송(213-700-5425)

이인규 기자



‘밀알가족 송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밀알선교단, 송년 모임 통해 감사 시간 가져”

애틀랜타밀알선교단(단장 최재후 목사)이 지난 13일(주일) 오후 5시 2015년을 마무리하는 ‘밀알 가족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최대근 집사의 경배와 찬양, 이희양 이사장의 환영인사, 양영선 부단장의 기도, 특별찬양(ANA밀알 수요 참가자) 그리고 최재후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재후 목사는 “밀알의 비전인 ‘밀알 센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 마음껏 예배하고 체계적인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 성인장이

들이 함께하는 공간과 농사를 지을 땅이 있길 기도하고 있다. 밀알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야채도 가꾸는 등 밀알의 사역이 때가 되면 더 풍성하여 지기를 꿈꾼다”고 밝혔다. 모임은 또, 지난 일년간 밀알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준 밀알가족에게 감사와 격려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더불어 밀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준 백낙용 집사, 박성하 집사와 최신애 밀알후원이 사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윤수영 기자

“北역류 임현수 목사 ‘종신형’ 선고 받아”

북한에 억류된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 임현수 목사(60)가 ‘반국가 활동’을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도 같은날 북한 최고 법원이 국가 전복 혐의로 임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같은 내용을 보도해 사실

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8일 ‘캐나다 관리들이 평양에서 북한 관리들을 두 번 만났지만 진전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고, 지난 1월 역류 이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했던 바 있다.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선양성령집회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선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영아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EM예배(토) 오전 11:00, EM예배(토)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9-11시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아침남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소년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HM예배 오후 3:00(청년), 장어우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0:00,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구역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월) 오전 10:30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 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십일) 오후 12: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목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최호연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남가주기쁨의교회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아동주일예배 오전 11:00
 학생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Harvor City.,CA90710 이황영 담임목사
 T:(310)326-03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이승준 담임목사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25 (월~금)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김기동 담임목사
 T:(714)262-1428

갯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이희철 담임목사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수석부회장 엘리야 김 목사
 (나눔과섬김의교회)



토랜스선한목자교회

1부 한어예배 주일 8:00AM
 2부 한어예배 주일 11:00AM
 3부 EM 주일 9:00A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253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김현수 담임목사
 T. 310-326-2001, 989-4381/ F. 310-326-2101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 이황영 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총무 윤 목 목사
 (한인 소망교회)



남가주헬로십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30(어린이예배)
 금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토 새벽 6:00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박혜성 담임목사
 T. (909) 397-5737

새생명중앙교회

주일 12:30분



540 S Commonwealth Ave.,LA CA 920020 서종운 담임목사
 T. (818) 515-5731

주님의 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어린이 & Youth 정오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5:30(화~금) 오전 6:30(토)



3300 West St, Somis, CA 93066 오정택 담임목사
 T. (805) 208-8242

동부사랑의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00
 Holy Wave 오전 10:15
 English Service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 예배 월~금 새벽 5:20
 토요 연합예배 토요일 새벽 6:30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박승규 담임목사
 T.(909) 590-3722

은혜와 평강의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광덕근 담임목사
 T. (818) 894-9266

성광장로교회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7:30새벽 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359 w. 24th street LA, C 90007 이상훈 담임목사
 T. (714) 510-1364

테바선교회 후원 다나병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축성탄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 (213) 487-0691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

회장 : 이기미
 T(213)235-7169

총무 : 김창근
 T(213)453-1573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고태형 담임목사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방주교회

주일 예배 11:00 AM
 주일 학교 11:00 AM
 수요 예배 7:00 PM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김명규 담임목사
 T. (310) 836-8342

한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869 W. Pico Blvd., LA,CA 90006 지영환 담임목사
 T. (213) 219-750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일새벽-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www.lasarang.com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사랑나눔선교회, 창대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이춘준 담임목사
 T.(909) 388-2940

십자가영성원

공동대표
 이명수 김재홍 목사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체험케 하소서”





한인 소망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분(월~금)



윤 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CA 90274
 T. (310)-715-9902

주님의 빛 교회

주님의 빛 교회 사역 목표

1. 예배를 통한 경배와 교제
2.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3. 제자 훈련을 통한 성숙
4. 성경적 상담을 통한 치유
5. 가정 교회를 통한 사랑의 실천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코너스톤 교회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이종용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cornerstonetv.com

밸리연합감리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18)



류재덕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부 Lifestream 오후 1:30
 한어청년부 미라클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주소 및 전화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366-0089 / F. 818-363-1619

vkumc.com

LA동부교역자 협의회

회 장 :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
 부회장 :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총 무 :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회원 교회 명단

글로벌선교교회	김지성 목사	은성교회	황명길 목사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	축복교회	김인경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	한의준 목사	코랄데오 장로교회	구병용 목사
뉴하트교회	박문환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이승준 목사
다이아몬드비중양침례교회	장철훈 목사	하늘샘교회	송재호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호산나교회	라세열 목사
디베라장로교회	황인식 목사	남가주섬김의교회	김도경 목사
브리지교회	장세정 목사	지구촌 교회	지동욱 목사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미주세한교회	주 신 목사
선한침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새벽별교회	최병현 목사
성화사랑의침례교회	이종철 목사	임마누엘침례교회	김석재 목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하시엔다한인감리교회	이재석 목사
엠마오장로교회	최준우 목사	한마음교회	박기덕 목사
유니온교회	김신일 목사		

인랜드 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inlandchurch.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창립”

교회-언론 소통 연구... 미래의 언론 변화 등을 분석·조사·연구 등의 목적

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소속 교회들이 주축을 이룬 ‘한국교회언론연구소’(이하 언론연구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창립 및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본격 출발을 알렸다.

언론연구소는 설립 기획과 창립 추진에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중심이 됐고, 동부제일교회(임은빈 목사), 연신교회(이순창 목사), 전주동신교회(신정호 목사), 평산교회(이흥식 목사) 등 여러 교회가 산과 역할을 감당했다. 다변화된 언론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고, 미래의 언론 변화 등을 분석·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예배는 이흥식 목사(평산교회, 이사)의 사회, 이상복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부회장)의 기도, 채영남 목사(총회장, 본향교회)의 설교, 박진석 목사(소장)의 경과 및 창립총회 보고, 이사장 취임, 손달익 목사(증경총회장)·박순태 장로(전국장로연합회장)의 축사, 정영택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드렸다. “진리로 공의를(사 42:3)를 제목으로 설교한 채영남 목사는 “오늘날 미디

어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언론 앞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듯, 모든 것이 언론 앞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채 목사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 사회와 언론에 드러내야 할까. 언론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종종 사실과 진실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매를 드는 어머니를 보며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그렇다. 어머니가 매를 든 진짜 이유, 곧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진석 소장은 “국내의 언론 매체와 언론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포럼과 세미나 개최,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현장 기독교 언론인 재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교회 차원에서의 언론 대응, 언론 피해 사례 연구, 정보 자료 분석, 언론 홍보 전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통계로 본 한국교회 사회봉사 그 장점과 개선할 점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월드디아스포라포럼(국제대표 오상철 박사), 성만교회(담임 이찬용 목사), 한국교회리더십포럼(회장 이기엽 목사)이 공동으로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 학술대회 & 교회학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이 행사는 15일 서울 노량진 CTS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와 기관, 크리스천 개인이 복음에 입각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의 결과 발표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세미나 -한 교사의 사명’ 세미나로 진행됐다.

설문은 패널 중심의 온라인 조사기관 마이크로밀레브레인 주관의 자체 패널조사, 국민일보 조사, CTS 조사 3가지 채널을 통해 서울 975개, 경기도 763개, 인천 209개 등 수도권 총 1,957개 교회와 비수도권 1,177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섬김 △사회적 약자 섬김 △사회정의 실현 등의 봉사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섬김의 경우 전체 교회들 중 91.4%가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섬김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전체의 75.1%, 사회정의 실현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전체의 51.1%였다.

지역사회를 위해 약 60%의 교회가 지

역사회 청소년 섬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와 노인 섬김 활동도 과반수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미화 활동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으로, 64%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 섬김·봉사의 경우, 독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44.43%)과 구제 활동을 하는 NGO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역(40.27%)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실업자 사역(15.46%)이나 통일교육 수행(13.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정의 실현 봉사의 경우, 봉사기관 지원은 42.92%,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나 공권력 남용에 관한 시정 참여도는 각각 12.36%와 10.66%였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섬김 정도와 충실도도 증가했으나, 단위당(1인당) 섬김 정도와 충실도는 그 반대였다. 직분별로 지각하는 각 봉사활동의 섬김 여부 및 그 충실도의 경우, 함종직과 서리집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목회자는 대부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권오병 교수(경희대 경영대학)는 “각 봉사와 섬김에 대해 목회자들의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신에게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교인들은 참여와 이해가 함종직보다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서리집사와 일반 교인이 더욱 충실히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탈북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한목협,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한 2015 성탄예배

연말연시를 맞이해 기쁨 따듯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이하 한목협)가 탈북(무연고) 청소년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일치(Unity), 갱신(Renewal), 사회를 향한 온전한 섬김(Diakonia)의 대명제를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던 한목협은

그동안 매년 12월에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기 위해 이 땅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드려왔다.

이번 해에는 천안드림학교를 찾아 성탄절을 앞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드림학교 학생 50여 명과 한목협 소속교회 목회자와 성도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국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국교도 9:30AM-100PM
대형한문E-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저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날아침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인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성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림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 예배 : 매일 4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렐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e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예배 토요일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미 :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분별하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감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사 6)를 사모하는 온전한 신심이 무엇인지 분별(사 6)을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P-j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에드미스쿨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한국어)부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찬양 영예)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영아)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FAM(예배) 오전 11:30(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hind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화요일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불링거는 이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교개혁자 불링거(Johann 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존 칼빈(1509-1564)보다 시대적으로 약간 앞서며 더 오래 살았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로서, 40년 이상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끈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신학자요 설교자요 역사가였다. 그는 모든 면에서 상당과 위로를 베풀었고, 동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헌신적 노력을 다했다. 아주 적은 수입으로 과부, 고아, 이방인, 망명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상관 없이 음식, 의복, 돈을 나누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메리 여왕의 폭정 때문에 대륙으로 피신해 온 개혁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또한 돌아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는 동료들에게서도 극찬을 받았다. 베자(Theodore Beza, 1519-1605)는 불링거를 “모든 기독교 교회들을 돌보는 만인의 목자”라고 했고, 글로스터의 주교 후퍼(John Hooper, 1495-1555)는 불링거에게 보낸 서신에서 “존경하는 아버지이자 안내자”라고 경의를 표하였다.

불링거는 일생 동안 12,000통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편지를 썼으며, 이는 영국의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식 개혁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미쳤다. 불링거는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다수의 영국 고위 성직자들과 만났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대륙으로 왔던 다수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환대했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도 교회 일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칼빈주의자들보다는 불링거에게 더 많은 조언을 구하였으며, 1570년에 이르러 교황 피우스 5세가 영국교회와의 단절을 선언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불링거에게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영국은 불링거가 소천한 날을 공공 재난일로 선포하고 애도할 만큼 그를 존경했으며 사랑했다.

1. 불링거와 이슬람

이슬람 세력인 터키와의 전쟁이 종교개혁 시기의 다양한 배경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다툼은 불링거의 목회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8세기 초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고 대부분의 북아프리카는 이미 무슬림들에 의하여 함락당했으며, 711년에는 스페인도 이슬람권에 편입됐다. 13세기에 칭기즈칸의 서진(西進)으로 말미암아 이슬람 제국의 형성이 와해되는 듯 보였으나, 오스만(Osman, 1258-1326)에 의하여 이슬람

세력들이 재정비됐다. 이후 그와 그의 후손들이 터키를 중심으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권인 유럽에 진출하게 된다. 이슬람 군대는 1500년에 알바니아(Albania)를 정복했는데, 그 4년 후에 불링거가 태어났다. 그리고 루터가 34살의 나이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때, 불링거는 13세 소년이었다. 이후 터키 이슬람 군대는 술탄 슐레이만(Suleyman, 1520-1566)과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서유럽의 동부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1541년에는 헝가리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였으며, 1546년에는 몰다비아의 전부가 터키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됐다.

2. 이슬람에 대한 불링거의 견해
다음은 조직신학자 김성봉 박사의 논문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 불링거의 견해”를 요약한 내용이다. 불링거의 견해는 한 마디로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이다. 그가 1566년에 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Irrlehren)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단이라는 뜻이다. 그 단락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하시고 예배 받으실 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들과 무슬림 등 모든 이단자들을 정죄한다”고 했다. 그는 아랍어에 능통한 취리히 신학자 테오도르 비블리안더(Theodore Bibliander, 1506-1564)에게서도 전문적 지식으로 도움을 받아 꾸란을 읽었으며, 불링거의 성경 주해를 보면 이슬람을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판단했다.

1) 불링거는 1567년에 “터키(Der Tuergg)”
불링거는 1567년에 “터키(Der Tuergg)”를 출간했다. 여기에서 터키란 당시 오스만 투르크와 함께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은 “이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것이 이슬람에 관한 불링거의 가장 중요한 책이다.
책의 첫 장 제목이 “터키인들의 신앙과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다. 그 책의 첫 문장은 “터키인들의 신앙은 무함마드의 신앙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어진 문장에서 그는 무함마드를 교황하고(listig) 비열하고(dueckisch) 위선적(glychssnerisch)이라고 특징 지었다. 둘째 장의 제목은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인데, 첫 문장이 “한 마디로 하나의 오래된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고 참되고 거룩하고 의심할 여지없는 신앙이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는데...”라며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천명하였다.

2) 꾸란의 기원
불링거에게 있어서 꾸란은 고대 기독교 이단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 꾸란을 하나님이 아니라 무함마드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불링거는 “꾸란은 기독교 이단 사제의 도움과 유대인의 조언이 함께 섞였으며, 아리안(Arians), 마케도니안(Macedonians), 네스토리안(Nestorians)과 같은 이단들에 의하여 부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꾸란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아해했는데, 그가 보기에 꾸란은 진리의 왜곡, 우화, 꿈, 거짓말, 속임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신성모독적 책이었다. 그가 보기에 무함마드는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오자 너희가 그를 영접하였다”(요 5:43) 그러므로 불링거는 꾸란에 대해 신적 메시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3)꾸란의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칭의인 데 반하여, 이슬람 신앙은 무슬림 개인의 선행에 근거한 칭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낙원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하드에 참전한다고 보았다. 이런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불링거에 의하면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삼위일체와 같은 기독교 교리를 거절한다. 꾸란은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여기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한다. 대신에 무함마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었다. 불링거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한다”(요일 2:23) 꾸란은 또한 그리

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유일한 종보자 되심을 부인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같은 부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주된 교리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불링거는 무함마드가 금식, 기도, 구제, 지하드, 이슬람 때문에 전투에서 순교하는 것 등으로 죄의 용서를 얻는다고 여기는 길을 고안해 낸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불링거에게 있어서 행함에 의한 구원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은, 교황의 면죄와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적(Pelagianisch)이다. 불링거는 펠라기우스 이단에서 이슬람과 가톨릭의 공통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그 둘 다에서 칭의의 결정적인 바른 이해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4) 꾸란의 가르침: 영생, 예배, 결혼, 일부다처
불링거는 영생, 예배, 결혼, 그리고 정부 등에 관한 꾸란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도전한다고 말한다. 꾸란은 영생을 제시하지만, 육체적인 방식으로 한다. 꾸란은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예와 성공과 부를 여기서 받을 것이며, 나중에 육체적인 쾌락, 가장 좋은 음식, 질 좋은 음료,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꾸란은 일부다처로 말미암아 결혼을 파괴하며, 무죄한 여인들을 남자들의 쾌락과 충동에 예속되도록 한다. 무함마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꾸란을 명시하는 자들을 압박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터키인들의 비인간적인 잔인함, 여인들과 소녀들에 대한 부끄러운 처신,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과 소년들의 사지를 절단하고 창자를 끄집어내는 일들을 기술하였다. 무함마드는 정복전쟁에 칼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겼으며, 그런 면에서 무슬림을 윈스터의 재세례파들과 비교했다.

불링거는 이슬람의 발흥과 성공의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악한 삶이 있다고 하였다. 불링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에 빗대어 이슬람의 성공을 설명한다. 헝가리 개신교도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헝가리와 동유럽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침략은 우리 모두의 죄악과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벌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머무르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셨다. 불링거는 이슬람을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한다. 첫째, 윤리적인 관점

(경건의 형식을 부인하는 것, 일부다처, 폭력과 지하드)이다. 둘째, 신학적 관점인데, 기독교적 주제와 구원론적 주제에 대한 그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별히 이 신학적 관점은 교황과 터키의 융합이 종말론적으로 이끌린다. 셋째, 이슬람에 대한 그의 흥미와 관심은 개념에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이다.

3. 불링거가 주는 교훈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다루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하나는 분별의 척도를 확보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근거로 경계할 것은 경계하되 그들에 대해서도 역시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점은 특히 불링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시대에 이슬람을 보면, 기독교와의 유사성과 차이성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불링거에 의하면 이슬람은 기독교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단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경건하고 잘못됐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슬람에서는 유일신에 대한 고백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은 없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대속의 은혜인데,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그들에게는 대속이 없고, 공덕에 의한 구원만이 있을 뿐이다. 이슬람이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계의 대상이다. 우리 시대에 그들이 아무리 평화의 미사여구로 접근해 올지라도,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또한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란 점에 있어서 긍휼의 여지는 있다. 특히 이 점은 불링거에게 있어서 돋보인다. 이슬람에 대한 불링거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암시를 제공한다.



하인리히 불링거.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결으로

김응교 | 새물결플러스 | 432쪽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저자가 25년간 문학작품의 고향을 찾아 떠난 길은 여행기이자 움직이는 독서 에세이집이다. 서울역 노숙인과 성매매 경험자 등 작은 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결에서' 쓰인 작품들을 소개하며, 자기만의 이득에 갇혀 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적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타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앨런 스톤 | 예수전도단 | 224쪽

가슴속에 묻어둔 채 고백하지 못한 '비밀'은 적극적·소극적인 죄, 가족의 것, 은밀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통해 순식간에 수치심과 공포, 가치관의 부재, 수많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해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찾으려 하며, 자유로운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첫 걸음은 바로 비밀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 나도 꼭 될래요 1

신선용 | 생명의말씀사 | 128쪽

'세상을 빛낸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마틴 루터 킹(사랑)과 유관순(결단),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실천)와 시어도어 루즈벨트(감사),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성실)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섬김), 아이작 뉴턴(극복)과 마리아 몬테소리(존중) 등 위인 8인이 신앙으로 살아 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꿈과 마음을 품고 자라도록 돕는다.



최근 야고보서 연구 동향

알리시아 J. 벤톤 | CLC | 152쪽

'21세기 신학 시리즈' 16번째 책으로, 야고보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폭넓고 깊이 있는 체계적·성경적·신학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한다. 지난 30여 년간 야고보서와 관련해 이뤄진 많은 연구들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해 준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공부해 보려는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이며, 어느 학자의 논문이 관련 연구 전체의 지형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파악하게 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당신 옆에 있는 낯선 자가 바로 신이다”

고전문헌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성서의 본질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가 던지는 궁극의 화두. 신약성서에 담긴 예수의 질문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예수는 누구인가? 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예수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그들만의 실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와 도그마를 통해 예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초대 그리스도교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자비의 행위를 강조한 영적으로 유기적이며 생동감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기원후 4세기, 정통 교리 논쟁에 휘말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는 교리를 숭배하는 정책을 강조했고 아쉽게도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만연해 있다.

이 책에서는 그 교리와 도그마를 과감히 버리고, 21세기 현대인에게 예수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는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는 하버드대 고전문헌학 박사이자 고대 오리엔트 언어 권위자로서 구약성서에 쓰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성서에 쓰인 그리스어를 비롯해 다양한 고대 언어를 연구해왔다.



인간의 위대한 질문 배철현 21세기북스 | 352쪽

이번에 출간된 <인간의 위대한 질문>은 고전문헌학자의 눈으로 본 성서의 본질과 종교의 진수를 담은 책이다. 신약성서에 담긴 예수의

질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질문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가 보여준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의 경험케 한다.

저자는 고전문헌학자의 눈으로 성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예수라는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지를 신약성서에 담긴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예수는 깊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 실천가였다. 또한 질문을 통해 사랑, 용서, 믿음, 인내, 진리 등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당시 힘없고 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신에게 대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정신이 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의 특징이 '낯설'과 '다름'이라고 정의한다.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와 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을 만날 수 없다. 그 다름을 수용하고 소중히 여기며 대접할 때 신은 비로소 우리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영인 기자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소지자 한함
20% DC
Coupon

“절망의 가지에서 날아오른 파랑새의 이야기”

절망 앞 방향 속...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소망을 얻고 파랑새처럼 날아오른 임래정 목사(성도교회 협동목사)가,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 <절망의 가지에서 파랑새 날다>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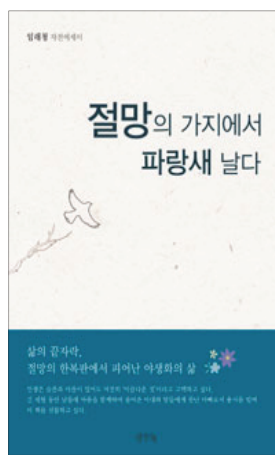
저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고 거리에서 잡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절망 앞에,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들쭉날쭉 살았다.

임 목사는 1968년 봄, 서울에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하여 청소년기를 보냈다. 청년 시절 유난히 불교에 심취했고 독서를 좋아했다.

부산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영국의 의료기기 회사를 만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잘나가려던 순간 다시 부도가 나고 말았다. 부도가 나는 날 영국에서 귀국하고, 국제 사기범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임 목사는 당시에 대해 “몇 번이고 가족들과 죽으려고 했지만, 죽을 용기마저 없었다”고 회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가면서 안정이 되어갔지만, 겉거되어 서울구치소 생활에 들어갔다. 당좌수표 9천5백만 원 부도로 인해 10개월 이상 형을 살아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54일 만에 출소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임 목사는 “감옥에서 기도하며 ‘언젠가는 이곳에서 나가 꼭 아내



절망의 가지에서 파랑새 날다
생각나눔
개발원 중앙박스 | 296쪽

와 영국 런던을 다시 방문하고 템스강을 거닐 것’이라고 수없이 다짐했다”고.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인생을 연단한 그는, 주일학교에서 작은 헌신을 시작한 데 이어 나이 50이 넘는 시점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M.Div)학위까지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공연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매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27개국의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며 난민들, 집시들, 노숙자들, 원주민들에게 재능기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온 가족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케냐를 다녀왔다. 이후 아내와 체코, 헝가리, 라오스, 그리스, 루마니아 등을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인도 차이나 한인선교사 라오스대회, 터키 한인선교사대회, 태국 한인선교사대회에도 강사로 나섰다. 2014년에는 회교국 파키스탄 카라치 도시에서 3일간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부흥전도집회와 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임 목사는 2015년 7월에는 마침내 사업가가 아닌 복음전도자가 되어 아내와 함께 영국을 찾게 됐다. 영국 압노스선교회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다시 방문하고,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하이드파크와 템스강가를 거닐며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외쳤다.

임 목사는 현재 그레이스선교회와 하늘샘 대표이며, 희망의 복음 메시지 간증집회와 세계 순회 사역을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쿠바, 도미니카, 아이티, 영국, 터키,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해외 집회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 목사는 수 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써 둔 글들을 모아 이번 책을 펴냈다. 글을 쓰다가 눈물이 나서 중단했던 것만 수십 차례였다. 임 목사는 “과거 교회 학교 교사로서 어려운 가운데도 작은 헌신이라도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교회 내에 말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어 보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날 것”이라고 했다.

김은애 기자

“용서는 평화와 행복의 문”

테러와 피의 보복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말하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포이에마 | 272쪽

위서 찾는 데 오래 걸리지만, 그렇다고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책에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용서의 문을 찾아냈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신도 어느새 그 문 앞에 당도할지 모른다”며 “그때는 부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뿐임을 기억하라”고 한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책을 읽었지만 나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감히 자신할 수 없다. 저자도 “용서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저자의 말처럼, 용서를 이론화하고 칭찬하거나 타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는 우리를 원한과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 주고, 마음속 상처나 분노를 누군가에게 퍼붓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게 해 준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도 용서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을 비호해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앞으로 수십 년간 반대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대방의 거친 태도에 적개심을 품으면 이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억압과 적개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많은 예에서도 보듯, 슬픔에 눈이 멀어 가해자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복수로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복수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없고, 오히려 깊은 번민과 환멸에 빠질 뿐임을 알 수 있다.

저자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1999년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경찰관 출신과 함께 ‘폭력의 고리 끊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용서를 통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브루터호프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흑인 민권운동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부모가 학교다>, <평화주의자 예수> 등이 있다.

이대웅 기자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강조한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는 말도 나오고,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도 용서하라(마 18:22)’는 주님의 말씀도 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 소식을 접하면서, 이 작은 책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았으며, ‘왜 용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처럼 직접 겪어내야 하는 사소한 문제부터 이러한 전 지구적 테러까지, ‘용서’는 끊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도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책에는 끔찍한 사고로 자녀를 잃거나 축구선수의 꿈을 좇다 무고한 폭행을 당해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등,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삶을 회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얻는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일제강점기와 6·25 등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안긴 우리나라의 사례도 여럿 나온다.

저자는 “용서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문”이라며 “낮고 좁아서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문은 찾기도 어려

“성경을 직접 읽는 게 어때요?”

‘그리스도인다운 독서’ 위한 실천적 입문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독서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신앙서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송영(頌榮)을 위한 독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독서’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이다. 저자는 그간 <독서모임: 대답은 있다 이야기>, <가정 예배>,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등에서 보여 준대로, 이 책에서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고 있다.

이번 질문은 추천사에 나온 대로 “그런 책을 말고 성경을 직접 읽는 게 어때요?”이다. 저자는 “종교개혁을 비롯해 건강한 부흥의 시대 때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



송영을 위한 독서
한재술
그책의사람들 | 160쪽

장 많이 열심을 낸 일이 바로 신앙서적 읽기였다”며 “신앙서적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이유와 같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이나 유익을 위해서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서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경험담을 섞어 들려 주고,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서’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사례, 추천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참고서’는 조직신학과 교리사 도서들이며, 계획표 수립과 책 고르는 법 등도 알려 준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토대로 한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부흥과개혁사)>을 ‘강력 추천’하고 있다. “일반 성도인 제가 적당히 알면 됐지 하는 생각을 교정해 주고,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 작은 책은 저자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선물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소강석 기념식 방송시 모음집

평화의 꽃씨

을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251면 / 10,000원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 한글인터넷주소 : 공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rm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강길 6 • T. : 747-1004(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매하여 보았나 몰라서라도 양말장사나 더욱 다양한 종류의 양말장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에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기념 세일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치아미백 3달분 \$60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The executive team, along with Rev. Steve Chang who is on the SOLA Council, met to plan the SOLA Conference on December 10.

SOLA Conference 2016 to Delve into Complex Issues of Collegiate Life

BY RACHAEL LEE

Local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are collaborating once again to host the fourth annual SOLA Conference, a conference for college students led and organized by leaders of various local churches rather than a single church, parish or campus ministry.

The upcoming conference will be centered on the theme, "Light After Darkness," and will explore a wide spectrum of issues that collegians may be struggling with, including personal questions about the future in terms of vocation or calling; relational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in navigating the intergenerational dynamic in the immigrant church; as well as emotional, physical, and mental issue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substance abuse.

Such a theme "assumes something about the spiritual anatomy of a human being," said Steve Lee, who pastors college students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in Brea, CA.

"Unless your whole being is healthy, there's going to be a gap in your spiritual growth. Spiritual growth is so much more than just the intaking of spiritual truths — it's every part of our being. Our past, our hurts, our pains — all of these are included in the continuum of spiritual growth," Lee explained.

Ronnie Park, lead pastor at Good Stewards Church, said such a theme is especially significant

for Korean Americans — a demographic which makes up the majority of the congregations of the churches that are collaborating to host this conference.

"There isn't a strong practice in the immigrant church for dealing with these issues in a gospel-shaped way," Park said. "I think for me, why I really love this part of the theme is that we're trying to normalize a conversation and a discussion of these issues."

Having an open conversation on such issues is also significant considering some of the social aspects of the time in which collegians currently live, the executive team said.

"We've become this 'Instagram generation' — everyone wants to show the perfect self," said Eugene Park, college pastor at Gospel Life Mission Church. "And it provides a false notion of life, that everything about you needs to look good. And if it doesn't, the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 We're hiding our problems and kind of living in the shadows."

Over the years, the conference has been on a path of steady growth in scale in terms of response as well as organization. Numbers in attendance grew from some 200 during the first conference in 2012 to 400 in the conference that took place earlier this year in April. The executive team, which takes on the bulk of organizing for the event, has also grown in number, from four churches being represented in last year's executive

team to seven in this year's.

Members of this year's executive team say that the growth could be attributed to a number of reasons, but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increasing efforts to partner with more local churches to host the conference, which they cite as perhap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growth in attendance.

David Park, the college pastor at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ttributed the growth to the uniqueness of the conference.

"Here in Southern California at least, I don't think there's any conference that is similar to what we are doing — one that is local church driven and targets collegians," Park explained.

"Just seeing this partnership of local churches, I think that's one huge reason we're growing," Park added.

This year's conference will feature three pastors as its main plenary speakers: Chris Brown, senior pastor of North Coast Community Church; Alex Choi, senior pastor of Sovereign Grace LA; and Harold Kim,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 pastor's luncheon will also be a part of the conference as in previous years, during which pastors of the various participating churches can share ideas and advice.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from April 15-16, 2016 at New Life Community Church in Artesia, CA.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thesolaconference.org, or email michael@allnationsla.org.

Youth Groups of Jewish Synagogue and Korean Immigrant Church Come Together to Learn

BY RACHAEL LEE

Leaders of a Jewish synagogue and a Christian church in Los Angeles are collaborating to give their youth an educational experience of other faith communities in the city.

Temple Israel of Hollywood and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started this collaboration with a joint youth experience on December 6, during which a group of 13 eighth grade students from Temple Israel visited the youth service at LACPC. The two are planning to have another event in February, when youth students from LACPC will be visiting Temple Israel during their youth service.

Pastor Joseph Kim, the youth pastor at LACPC, said his agreement to collaborate with Temple Israel staff to create opportunities like this came from his personal curiosities as well as hopes to provide an educational experience for the youth students.

"I don't know much about Jewish culture except for what I read in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and I'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Jewish people or see how Jewish worship is done in their synagogues, modern day," Kim explained.

"And for our kids, having this kind of exposure really opens their eyes and would inform them as they grow into adults," he continued.

"Right now, our kids have been going through Old Testament books for the past few months in their personal devotionals, and I thought it would be a cool experience for them to actually interact with the descendants of the people they're reading about. It would serve as a great supplement to their devotional material, and open their eyes to what the Jewish community is like."

"I had not been to church before, and there was such a great spirit there," said Senior Rabbi John Rosove, who accompanied the eighth graders to LACPC's youth

service.

"I didn't have any expectations going in because it's better to go in with a blank slate and have the experience define itself — and frankly, I was blown away," Rosove added.

The church carried out the youth service as they normally would during any other Sunday, with worship music, sermon, and prayer. But when they usually had Bible study after the worship service, they replaced it with a panel discussion to give an opportunity for the Jewish youth to ask questions about the Christian community and faith.

For the panel, some of the questions were prepared in advance by the Jewish students and sent to LACPC leaders, and some were asked spontaneously at the event. Most of the students asked questions about what the LACPC youth thought was unique about their faith and their community, and how their faith helps them in their struggles.

In response, one of the panelists said friends made at church are not only friends, but brothers and sisters — a much deeper connection than simply friends. Going to church is like coming home, said another. The community provides a safe haven and support when going through difficult circumstances, they said.

Youths of both Temple Israel and LACPC expressed positive reactions to the experience. The eighth grade students from Temple Israel said the experience "broadened their perspective of the faith community," as the Christian worship service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worship at the synagogue. Youth from LACPC expressed excitement to visit Temple Israel in February.

"I was very moved by the kids' responses to the questions," Rosove said. "And these kids were thoughtful and warmhearted — to each other and to all of us. I came home thinking, 'My goodness. This is what all faith communities should be like.'"

Embracing a Personal Role Within the Immigrant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VI: Pastor James Kwak

BY RACHAEL LEE

Pastor James Kwak is one whose perspective of his role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has changed completely over his eight-year career — from having desired independence from the immigrant church, to now embracing and wanting to stay within it.

Kwak, who is currently the lead English ministry (EM) pastor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FPCOC), is part of the "1.5 generation," having moved to the U.S. from Korea when he was in the third grade. His move to America at a young age and the trajectory of his pastoral career — having served as a pastor in children's, youth, college, and now English ministrie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 has allowed him to identify with many of the experiences that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s have undergone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Though his experiences of having lived in Korea during his childhood have helped him to understand certain aspects of the culture, many times, he said, he felt just as confused as any other Korean American pastor.

"One thing I learned, for example," he recalled, "is that when I go out to 'shimbang' (visitations) with my senior pastor, and the guests bring out a little too much food, it's my job to finish all the food if there are leftovers. I didn't know that — I learned about it from a KM (Korean ministry) associate pastor."

For a period, he had believed that the only ideal future for the EM is to become independent, and independence was a goal that he had personally pursued. One of the main reasons he pursued independence was rather simple: "In the Presbyterian reformed circle at least, church polity just becomes an issue."

"Yes, the first generation members can take in second generation pastors for session, but the meetings are just going to be chaotic trying to translate things for people," Kwak said. "It's a valid reason and I can see why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would want to pursue independence."

But his perspective for his own role has changed. His personal role is to stay with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at least for the time being, he said.

Even when he first took up the EM pastor position at FPCOC almost three years ago, he started off by asking the EM leaders and members if they would be okay with remaining as an EM in FPCOC, despite the fact that seed money had been set aside for the EM's eventual growth into independence. The KM session was also willing to support Kwak's decision if he decided to pursue the route of independence.

Yet, two main realizations led to his change in perspective, Kwak said.

"One is that I realized the future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s looking a little bleak — from

my research, experiences, and thoughts," he explained. "Many capable Korean American and even 1.5 pastors are leaving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ere are so many other options that seem more attractive."

Another factor that may be causing 1.5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s to leave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s what he called "young, temporary movers" — new immigrants from South Korea.

"Many of these young, temporary movers from South Korea are unchurched," he explained. "So the older first generation pastors start hiring more younger first generation pastors to attract those young, temporary movers to come to their churches."

"Before, in the late 90s, the promise to 1.5ers and second gen pastors was, 'Stay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You're the future. You're going to lead the church.' But now, these young first gen pastors are getting hired, and they even have a different mindset from that of the older first gen pastors."

These thoughts about the current and future state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led him to a second realization — that of his own gifts. His understanding of both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as well as his fluency in both Korean and English, are significant gifts that enable him to bridge the gap and clear up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KM and EM, he said.



Pastor James Kwak is the lead EM pastor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When I realized these things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I just thought, 'As a 1.5, what can I do?' And to be honest, I really didn't want to be a 'bridge' for the KM and EM. But I think God gave me this gift. He really made me fit for this role."

Acting as a 'cultural bridge,' for Kwak, means being a helper of sorts to allow two different parties understand where the other is coming from — in this case, the KM and the EM.

"For example, one major thing that the second gen will never understand is how the first gen is wired to think," he explained.

"Our parents have a lot of 'han' (a term referring to a sense of grief unique to the Korean culture). That's wired in the Korean culture, and the second gen will never understand it. On the other side of that, the first gen will never understand how the second gen is wired either. That when they come

to church in jeans and a t-shirt, it doesn't mean they disrespect God."

Kwak tries to act as that bridge first to the leaders and members of the EM at FPCOC by explaining misunderstandings they may have about the KM, and encouraging them to show humility and respect to the KM. Instead of waiting to be asked by the KM to do certain things, Kwak said for example, he encourages the EM to take initiative and ask how they can help. The EM deacon board also cooked and served dinner for the KM session members. Though there was a language barrier, "still, sitting together, breaking bread, and trying to have a conversation, that just spoke a message in and of itself: 'I care about you, you care about me.'"

"Just through small things like this — I just want to fill in a little bit of what's lost in translation for both sides."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연말연시에는 신나는 디렉티브!

2 개 한국채널

5 개 한국채널

14 개 한국채널



KoreanDirect™ 패키지 + PREFERRED CHOICE™ 패키지
오직 DIRECTV에서만 14개 한국채널과 145개 이상 영어채널이
월 \$38.98*

12개월간. *자동 청구서 결제 가입 및 24개월 약정 필요. **플러스 추가 요금.



SBS MBC KBS WORLD YTN CTS radiokorea arirang

SBS Plus macovery tvN EBS MBN tan NATIONAL GEOGRAPHIC CHANNEL KOREA

Arirang TV - HD 기기 요구

°케이블 위성 방송 기준

오피는 2016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규 가정용 DIRECTV 고객에게만 해당됩니다(장치 리스 필요). 신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MA와 PA 제외). 초기 해지 수수료(최대 \$480)가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장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케이블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전화하세요!

1.877.602.0490

DIRECTV
Now part of the AT&T family

*패키지 오퍼: 12개월간 기본 패키지 가격에 즉시 청구서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고객님의 구입 시 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패키지와 자동 청구서 결제를 반드시 활성화하고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는 12개월 후, 고객이 서비스 변경을 위해 DIRECTV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시점부터 일반 가격이 적용됩니다(KoreanDirect \$28.99/월, PREFERRED CHOICE \$48.99/월). PREFERRED CHOICE 패키지에는 자격이 되는 WorldDirect 인터내셔널 선택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일반 TV 서비스 규정: DIRECTV 고객 동의서 및 장치 리스 동의서가 적용됨. 고객님의 기본 월\$29.99 TV 패키지 또는 그 이상, 또는 인터내셔널 서비스 번들을 유지해야 함. 모든 HD DVR에는 어드밴스 리시버 요금(월\$15)이 부과됨. DIRECTV 리스로부터 TiVo HD DVR에 대한 TiVo 서비스 비용(월\$5)이 요구됨. 각 수신기 당 및/또는 Genie Mini/DIRECTV Ready TV/Device에 대한 월\$6.50의 비용이 고객의 여카운트에 청구됨. \$19.95의 핸들링 및 배송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수신기 당 비활성화 비용 \$150이 발생할 수 있음. 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프로그램, 요금, 거래 약관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설치: 스탠다드 전문 설치는 최고 방 4개에 한함. 맞춤 설치 시 요금 추가. 설치 비용은 세금 조정이 적용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directv.com/legal 방문 또는 1-800-DIRECTV으로 전화.
© 2015 AT&T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보유. AT&T, Globe 로고와 모든 DIRECTV 마크는 AT&T Intellectual Property 및 AT&T 계열 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